

윤선도의 금채동 경영과 「산중신곡」*

이상원**

<차 례>

1. 서론
2. <만홍> : 회심당 주변에서 맛본 화자의 흥취
3. <오우가> : 금채동에서 발견한 자연의 미덕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윤선도의 「산중신곡」이 금채동 경영과 직접적 관련 속에서 산출된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거기에 입각해 <만홍>과 <오우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만홍>은 금채동 원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심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의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맛보게 된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6수 중 제1수는 전체의 서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심당을 짓고 금채동을 경영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밝힌 것이다. 제2수~제5수는 본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시 둘로 세분된다. 제2수와 제3수는 회심당 주변에서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구체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제4수와 제5수는 회심당 중심의 금채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 제6수는 결사로서 모든 것을 군은(君恩)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상투적인 마무리라기보다는 금채동의 자연을 접하면서 실제로 느낀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오우가>는 다섯 개의 자연물을 내세워 그것의 덕성을 칭송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 선택된 다섯 개의 자연물과 그 덕성은 윤선도가 금채동에서 새롭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게 발견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과 바위는 천석고황(泉石膏肓)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대표적 자연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다. 윤선도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꼈기에 오우의 대상으로 삼았다. 술과 대는 사시(四時)에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히 주목되어 온 것들인데 윤선도가 이들을 오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윤선도가 이들을 선택한 것은 땅 속 깊이 박혀 있는 소나무 뿌리의 곧음이나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의 속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덕성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달 역시 금쇄동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작은 것의 위대함을 직접 깨닫게 되었기에 오우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쇄동, 만흥, 산중신곡, 오우가, 윤선도

1. 서론

이 글은 윤선도의 『산중신곡』이 금쇄동 경영과 직접적 관련 속에서 산출된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거기에 기반하여 각 작품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중신곡』은 윤선도의 문집인 『고산유고』에 “임오년 금쇄동에 있을 때”¹⁾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의 연보에도 “임오년(56세) 금쇄동에 있을 때 『산중신곡』 18장을 지었다.”²⁾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산중신곡』은 임오년인 1642년(56세) 윤선도가 금쇄동에 있을 때 창작한 것으로 믿어 왔다. 그런데 박준규의 연구를 계기로 『산중신곡』의 창작

1) “壬午在金鎖洞時.” 『고산유고』 권6 하, 『한국문집총간』 91, 민족문화추진회, 1992, 500a.

2) “壬午(公五十六歲, 在金鎖洞), 作山中新曲十八章.” <孤山先生年譜>, 『고산연구』 제3호, 1989, 부록 30쪽.

공간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박준규는 『산중신곡』 중 <만홍>을 비롯한 상당수의 작품들이 금쇄동이 아닌 수정동을 배경으로 창작된 것이라 주장하였다.³⁾ 바로 이듬해에 『산중신곡』과 <금쇄동기>의 관계를 고찰한 최진원의 연구⁴⁾가 발표됨으로써 『산중신곡』의 창작 배경이 금쇄동이라는 것이 다시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전개 양상은 박준규의 견해가 훨씬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박준규의 견해를 적극 반박한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데다가, 그가 『산중신곡』의 수정동 창작설을 주장하면서 가장 결정적 논거로 제시한 작품인 <만홍> 제1수와 관련하여 후대 연구들에서 수정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홍> 제1수가 수정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타의 작품을 또한 금쇄동이 아닌 수정동에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한편 박준규는 금쇄동에서 창작된 것이 명백한 일부 작품까지 수정동 원림 경영의 산물임을 주장하기 위해 수정동, 문소동, 금쇄동으로 이어지는 원림 경영과 관련하여 이를 각각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셋을 하나로 묶어 수정동 원림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 그의 말대로 세 원림을 통합하여 하나로 부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동 원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기왕 셋을 통합해서 하나로 부르려 한다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원림으로 명칭을 삼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수정동이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3) 박준규, 『고산의 수정동 원림과 산중신곡』, 『고산연구』 제2호, 1988, 49 ~ 81쪽.

4) 최진원, 『산중신곡과 금쇄동기의 관계-자연관을 중심으로-』, 『고산연구』 제3호, 1989, 143 ~ 154쪽.

5) 박준규(1988), 앞의 논문.

이다. 윤선도는 병자호란 때 임금께 달려와 문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1638년(52세) 여름 경상도 영덕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듬해인 1639년(53세) 봄에 유배에서 풀려나 해남으로 돌아온 뒤 원림 경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그가 처음 발견한 것은 수정동이며 이어서 문소동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고산선생연보>(이하 <연보>로 약칭)에는 1639년(53세)에 수정동에 인소정(人笑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문소동에 정사(精舍)를 마련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⁷⁾ 이로 미루어 수정동과 문소동은 거의 동시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선도의 수정동과 문소동 경영은 이때로부터 1641년(55세)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 중 핵심은 1639년(53세) 여름부터 1640년(54세) 여름까지 한해 남짓이라 할 수 있다. 1639년(53세)에는 수정동과 문소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자와 정사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빨라야 여름부터 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1640년(54세)에는 이미 여름에 금쇄동을 발견하여 그곳에 여러 기반을 다지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⁸⁾ 이에 비하면 금쇄동 경영은 1641년(55세)부터 1646

6) “기묘년(1639, 인조17) 2월에 내가 영덕(盈德)의 유배지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20일 아침에 경주(慶州) 지역 요강원(要江院)에 이르렀을 때, 미아가 마마를 잃다가 이달 초하루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너무 아파서 어떻게 마음을 견잡을 수가 없었다.”(이상현 역, 『고산유고』 1, 한국고전번역원, 2011, 311쪽.)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1639년 2월 말경에 해남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가 이해 몇 월쯤 수정동 원림을 발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7) “己卯(公五十三歲), 二月蒙敕還海南(遂以家事付長子仁美), 卜築于水晶洞(洞壑幽邃, 有數丈飛瀑傍築小亭命以人笑, 又得聞簫洞, 亦有精舍, 皆任海南距白蓮舊業二十里).” <고산선생연보>, 앞의 책.

8) 윤선도가 <금쇄동기>를 쓴 시기와 관련하여 <연보>에는 1640년(54세)에 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금쇄동기> 말미에는 신사년(1641년, 55세) 세모에 지었다고 밝히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19세기에 정리된 <연보>의 기록보다는 <금쇄동기>의 기록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금쇄동기>의 저술시기를 1641년(55세)

년(60세)까지 약 6년간으로 훨씬 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646년 보길도 부용동으로 떠난 이후에도 윤선도는 부용동과 금쇄동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연보>에는 기록되어 있다. 수정동 및 문소동 경영과 금쇄동 경영의 이런 차이는 시문의 양에서도 드러난다. 수정동과 문소동에서 창작된 것은 시 몇 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쇄동의 경우 <금쇄동기>를 비롯하여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문을 창작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 원림을 굳이 하나로 묶어 부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쇄동 원림으로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수정동, 문소동, 금쇄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원림 경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금쇄동이며, 『산중신곡』은 윤선도가 금쇄동 원림을 조성한 이후 거기서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만흥> : 회심당 주변에서 맛본 화자의 흥취

우선 기존연구에서 수정동 창작설의 가장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 <만흥> 제1수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흥니
 그 모론 늪들은 온는다 흥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흥노라.⁹⁾

으로 볼 경우, <금쇄동기>의 내용 중에 “대(臺) 아래 서북쪽에 깊은 계곡이 있으니, 바로 옥녀동(玉女洞)이다. 내가 지난해 여름에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여기도 기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윤선도가 금쇄동을 발견한 시점은 1640년(54세) 여름 이전이라 할 수 있다.

박준규는 중장에 나오는 “남들이 (비)웃는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이 작품이 수정동의 인소정(人笑亭)을 대상으로 지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만홍>이 수정동의 산물임을 주장하였다.¹⁰⁾ 이는 인소정(人笑亭)의 의미를 “남들이 비웃은 정자” 또는 “남들의 비웃음을 산 정자”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과연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다음 시를 보도록 하자.

雲錦屏高瑤席上	구름 비단 병풍이 요석 위에 드높이
水晶簾迤玉樓傍	수정의 주렴이 옥루 옆에 비스듬히
如何有此豪奢極	어찌다 이런 호사를 극하게 되었는데?
自笑幽人忽濫觴 ¹¹⁾	유인의 뜻밖의 횡재에 절로 웃음 나오누나.

윤선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정동과 문소동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이 두 원림을 함께 경영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정동에는 정자를, 문소동에는 정사를 지은 것으로 보아 수정동은 영월음풍(迎月吟風)의 공간으로, 문소동은 강학(講學)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수정동에서의 영월음풍을 위한 핵심 구조물로 구축된 것이 인소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위상을 가진 인소정의 명명과 관련하여, 정자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방향에서 작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위의 시는 그 가능성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정자의 명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정자의 바로 앞에 요석암(瑤席巖)

9) 『고산유고』, 앞의 책. 이하 작품 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함.

10) 박준규(1988), 앞의 논문.

11) <雨後戲賦翠屏飛瀑>, 『고산유고』, 앞의 책, 275a. 번역은 “이상현 역, 『고산유고』 1, 한국고전번역원, 2011, 318쪽.”을 참고한 것임.

이라는 너른 바위가 있고 그 앞에 취병비폭(翠屏飛瀑)이 있다. 윤선도는 수시로 정자에 앉아 취병비폭을 바라보고 즐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이를 그는 지극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비 온 뒤의 취병비폭은 특히 장관을 연출하여 이를 바라보는 윤선도로 하여금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이 정자의 이름을 인소정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소정의 ‘인소’는 위 시의 마지막 구에 나오는 “自笑幽人”에서 취한 것이며, 인소정은 “유인을 절로 웃게 하는 정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흥> 제1수는 수정동의 인소정과 관련이 없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면 <만흥> 제1수는 어떤 배경으로 창작된 것일까? <만흥>은 윤선도의 금채동 생활을 노래한 것이고, 그 중 제1수는 일종의 서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채동 구축 과정에서 일었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이다.

내가 휘수정(揮手亭)과 회심당(會心堂)을 경영하려는 마음은, 마치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나, 한해의 농사가 마침 크게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때라서, 공역(工役)에 필요한 사향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장획(臧獲)¹²⁾ 몇 구(口)를 속바치게 하여 공사비용을 충당하려고 한다. 천석(泉石)이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장획을 헐값으로 마구 내놓아 도모하려고까지 하니, 나의 산수(山水)에 대한 고질병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은 물론이지만, 나 역시 자조(自嘲)의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옛사람이 말하기를 “고기가 없으면 살이 마를 뿐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마음이 비속해진다.”라고 하였으니, 장획은 비유하면 고기라고

12) 노비를 이르는 말이다. 장(臧)은 사내중, 획(獲)은 계집종을 가리킨다. 『고산유고』에는 ‘藏獲’으로 잘못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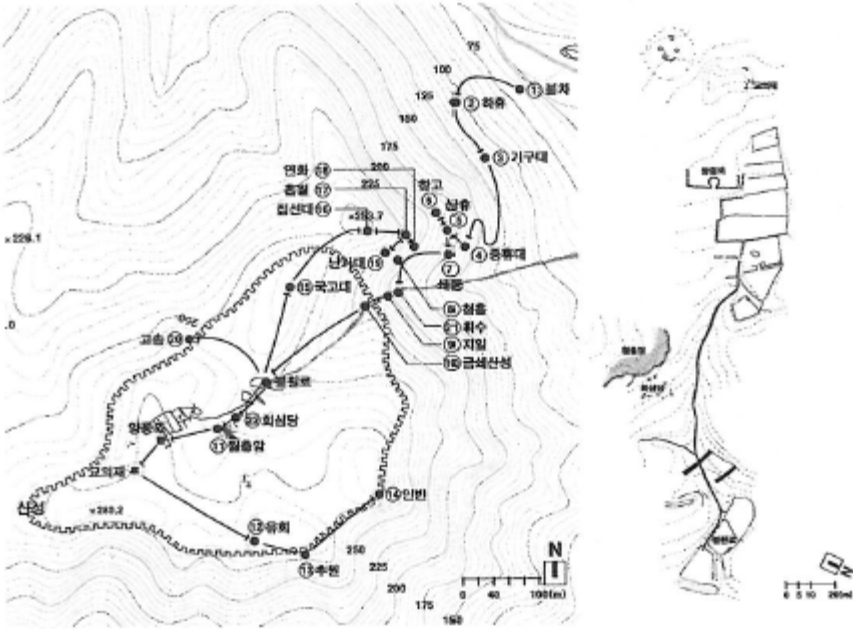
할 것이요, 천석은 비유하면 대나무라고 할 것이다. 내가 취사(取捨)한 것은 실로 여기에 있으니, 후세의 군자 중에 이를 제대로 말해 줄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¹³⁾

윤선도는 이미 수정동과 문소동을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1640년(54세) 여름 무렵 금쇄동을 발견하고는 여기에 온 정신을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그는 금쇄동 일대를 살살이 둘러보며 의미 있는 기암괴석들 중심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금쇄동 중심지에는 휘수정과 회심당(會心堂) 등 건물을 지은 뒤 1641년(55세) 세모에 드디어 <금쇄동기>를 짓고 본격적인 금쇄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금쇄동 경영 과정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지나친 것이었다. 수정동의 인소정과 문소동의 정사는 일반적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로 진행된 금쇄동 원림 조성은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흉년으로 생활이 힘든 때였으니¹⁴⁾ 그 비난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을 보면 윤선도 본인도 이런 점을 모르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를 계속한 것은 지나친 산수벽(山水癖)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윤선도의 산수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만홍>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제1수는 전체의 서

13)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27쪽. “余之經營，揮手會心，如飢渴者之思飲食，而歲適大侵，百口阻飢，工役之糧，無計可措，欲許贖藏獲數口以辦此事。泉石亦非方寸間物事，而至於斥賣藏獲而圖之，夫我山水之癖，不已過乎。人必以爲笑，而余亦不免於自笑也。然古人云，無肉令人瘦，無竹令人俗，藏獲譬則肉也，泉石譬則竹也。余之取舍固在於此，而後之君子必有能言是者矣。”(『고산유고』, 앞의 책, 443d.)

14) 다음 기사가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팔도에 크게 닥친 가뭄의 재변이 삼 년 동안의 흉년 뒤에 잇따랐고 밀과 보리가 이미 말라 죽어 온 들이 붉게 물들었으니, 이는 실로 전고에 없던 큰 재변입니다.” 인조19년(1641년) 4월 28일 계유 1번째 기사, 『인조실록』 42권, 『조선왕조실록』 DB, 국사편찬위원회.

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회심당을 중심으로 한 금쇄동 경영이 자신의 본분임을 밝힌 것이다. 회심당은 월출암(月出巖)의 아래에 지은 집이다. 따라서 초장의 “바회”는 월출암을 가리키고, “뛰집”은 바로 회심당을 가리킨다.



[그림] 금쇄동 원림유적 배치도면(좌) 및 부분 상세도면(우)¹⁵⁾

보리밥 찌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긔 몃그의 슬긔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15) 성종상, 『고산 운선도 원림을 읽다』, 나무도시, 2010, 46쪽.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못내 도하 흐노라.

제2수~제5수는 본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사 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두 수와 제4수와 제5수의 두 수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2수와 제3수는 회심당 주변에서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구체적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제2수에서 화자는 보리밥에 풋나물을 반찬 삼아 소박한 식사를 마친 후에 물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주변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여기 바위는 월출암으로 보인다. <금쇄동기>에 “월출암에서 북쪽으로 도랑을 건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월출암과 회심당의 옆으로 계곡물이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제2수는 월출암에 앉은 화자가 가까이 있는 자연을 보고 즐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제3수는 월출암에서 바라본 원경(遠景)을 나타낸 것이다. 초장에서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앉아 있는 위치는 역시 월출암이다. 그리고 먼 산은 바로 월출의 여러 산들이다. 이 작품은 <금쇄동기>에서 월출암을 묘사한 부분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삼라(森羅)한 경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월출(月出)의 여러 산들이 하늘길을 밝게 비추고, 천왕(天王)의 한 봉우리가 두극(斗極, 북두성과 북극성) 사이에 우뚝 서 있다. 시선이 여기에 걸리면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서 모든 근심을 잊게 하고, 그밖에 내려다보이는 세상의 시끄러운 일들을 모두 버려둘 수 있기에, 이 바위를 명명하여 월출암(月出巖)이라고 하였다.¹⁶⁾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치가 끝없이 펼쳐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월출산에 눈이 머물게 되면 즐거워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가 왜 그리워하던 임이 온 것보다 더 반갑다고 한 것인지 능히 짐작이 간다.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돏더라
아마도 님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샤
인간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하시도다.

제2수와 제3수가 회심당 주변, 즉 월출암에서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구체적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제4수와 제5수는 고사와 하늘을 끌어들이며 회심당 중심의 금쇄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4수에서는 금쇄동에서의 임천한흥을 견줄 곳이 없다고 했다. 이는 금쇄동 원림과 그 속에서 보내는 생활은 고금을 통틀어 최고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고사를 적극 활용했다. 초장 앞 구는 대복고(戴復古, 1167~?)가 엄광(嚴光)을 칭송하는 <조대(釣臺)>라는 시에서 읊은 “三公不換此江山”을 차용한 것이다. 문제는 다음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만승(萬乘)은 천자의 지위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만승이 이만하랴”라는 것은 금쇄동 원림 생활이 천자의 지위보다 낫다고

16)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15쪽. “森羅者殆不可數計, 而月出群尖, 映燭天街, 天王一峯, 特立斗極. 眼懸于此, 則令人樂而忘憂, 其他俯視中擾擾, 皆可略也, 因命此巖曰月出巖.”(『고산유고』, 앞의 책, 443d.)

까지 말하고 있는 게 된다. 엄광은 후한 광무제가 삼공의 벼슬을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춘산(富春山)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윤선도는 삼공보다 더한 임금의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금쇄동을 떠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 옛날 기산(箕山) 영수(潁水)에서 은거했던 소부, 허유가 참 약았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자의 지위보다 강산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자신보다 훨씬 먼저 깨달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제4수는 윤선도가 왜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쇄동 원림 조성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이는 회심당의 이름을 ‘회심’으로 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월출암(月出巖)의 북쪽에 작은 집을 지어, 편히 앉아서 정신을 기르는 장소로 삼고, 그 집을 회심(會心)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 뜻은 어디에 있겠는가.

천석(泉石)과 원경(遠景)을 둘 다 온전히 얻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천하고금의 말이다. 그런데 십대(十臺)의 원경과 일정(一亭)의 천석이 수백 보 사이에 둘러 있고, 집이 그 가운데에 거하여 모두 통합해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높은 산의 맨 꼭대기는 반드시 기운이 차갑고 바람이 매섭기 때문에 신기(神氣)가 왕성하고 뼈대가 강한 자가 아니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곳으로 말하면, 기후가 온화하고 분위기가 안정되어 병든 몸을 요양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절경(絶境)은 찾아가기 어렵다고 일컬었다. 그래서 고정(考亭, 주희)도 운곡(雲谷)에는 한 해에 한두 번밖에 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곳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귀와 눈으로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지만, 사람이 사는 경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거리가 나의 수정산(水

晶山) 거처와는 5리(里)도 채 되지 않고, 문소산(聞簫山) 거처와는 1리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환(一丸)의 요새와 천년의 비경(秘境)이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개방되어, 비쩍 마른 내 육신을 날마다 데리고 가게 함으로써, 고정(考亭) 부자(夫子)가 도화(圖畵)나 이따금 감상하며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던 그리움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였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⁷⁾

금쇄동 원림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회심당이다. 따라서 <금쇄동기>에 서도 이 회심당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다. 회심당 관련 서술의 대부분은 회심당이라 명명한 이유를 밝힌 것인데 위는 그 중 일부이다. 천석과 원경을 둘 다 얻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이 둘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점, 높은 산의 맨 꼭대기는 기운이 차고 바람이 매서워 살기가 어려운 법인데 여기는 기후가 온화하고 분위기가 안정되어 요양하기 좋다는 점, 주자도 운곡을 1년에 한두 번만 가고 그림으로 아쉬움을 달랬을 정도로 예로부터 절경은 찾아가기 어려운 것이 상례인데 여기는 절경인데도 상주하며 즐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음에 흡족함을 느껴 회심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당시에 윤선도가 금쇄동을 얻고 얼마나 만족감에 젖었는가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만족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 <만흥> 제4수가 아닌가 한다.

17)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23~424쪽. “又欲構小堂于月出巖之北, 以爲宴坐頤神之所, 命以會心. 其義何居. 泉石遠景, 難得兩全, 此乃天下古今之言也. 十臺之遠景, 一亭之泉石, 環列於數百步之間, 而堂居其中, 統而有之, 此非會心者歟. 高山絕頂, 必氣寒而風烈, 非神王骨强者不敢居, 而此則溫然而暖, 恬然而安, 可以養病, 此非會心者歟. 古稱絕境難到. 考亭之於雲谷, 歲不過一再至, 而此則人世耳目所未嘗聞見者, 不遠於人境, 去余水晶山居不能五里, 去余聞簫山居不能一里. 而一丸之塞, 千載之祕, 胡然爲我而開, 能使我日致羸形, 而不使我有考亭夫子圖畫時觀, 欲以自慰之戀乎. 此非會心者歟.” (『고산유고』, 앞의 책, 447c~d.)

제5수에서는 제4수의 내용을 이어받아, 그토록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강산을 지키게 된 것이 하늘의 뜻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금쇄동의 발견이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졌다는 다음의 발언과 연관 지어 볼 때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꿈속에서 쇠 자물쇠가 잠긴 구리 櫓[金鎖錫櫓]를 얻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동천(洞天)을 발견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꿈속에서 본 것과 부합되었으므로, 이 동천을 금쇄(金鎖)라고 명명하였다.¹⁸⁾

한편 줄곧 회심당을 중심으로 한 금쇄동 생활이 자신의 본분이며 하늘이 부여한 운명임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즐기는 흡족한 마음을 표현해 오던 작가는 마지막 결사에서 그 모든 것을 군은(君恩)으로 돌리고 있다.

강산(江山)이 도타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햏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금쇄동이 고금에 찾기 어려운 절경이고 이것을 즐기는 흥취가 건줄 곳이 없다고 말해 왔던 화자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군은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상투적인 마무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결사 역시 당시 윤선도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번 북쪽 창문을 열면 가산(家山, 고향)이 눈 안에 들어오고, 인친(姻親)

18)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12쪽. “余夢得金鎖錫櫓, 不數日得此洞, 節節與所夢符合, 因以命名焉.”(『고산유고』, 앞의 책, 445a.)

들의 밥 짓는 연기가 분명히 바라다보이니, 비록 궁벽한 오지(奧地)에서 가사(家事)를 단절하고 자취를 감춘다 하더라도, 송추(松楸, 선영)에 대한 감회와 상재(桑梓)에 대한 외경심을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국고(跼顧)에서 북신(北辰)을 올려다보고 인빈(寅賓)과 고송(孤松)에서 일월(日月)을 바라보고 유회(有懷)와 추원(追遠)에서 고복(顧復)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집이 실로 나로 하여금 표표연(飄飄然)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우뚝 서서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뜻을 갖게 하면서도, 끝내는 또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倫理)를 도외시하지 않게 하고, 이 집이 실로 나로 하여금 낙시하고 발갈이하는 흥치와 거문고 타고 장구 치는 즐거움을 오롯이 하게 하면서도, 끝내는 또 나로 하여금 전철(前哲)의 향기로운 발자취를 높이 우러르고 선왕(先王)이 끼친 기풍(氣風)을 노래 부르게 하니,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⁹⁾

회심당에서 북쪽 창문을 열기만 하면 고향 마을이 눈 안에 들어오고, 금쇄동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북신과 일월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금쇄동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세독립(遺世獨立)과 우화등선(羽化登仙)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부모에 대한 은혜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더라는 것, 아니 더욱 간절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윤선도의 태도이다. 그는 우리가 그 동안 서로 대립되는 가치라고 여겨왔던 유세독립이나 우화등선과 부

19)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24~425쪽. “一啓北牖, 家山入眼, 姻親煙火了了望中, 雖斷家事絕景於窮奧, 而不能忘松楸之感桑梓之敬. 今移杖屨則瞻北辰於跼顧, 望日月於寅賓孤松, 思顧復於有懷追遠. 然則此堂固能使我飄飄然有遺世獨立羽化登仙之意, 而終亦使我不外於父子君臣之倫理, 固能使我專釣水耕山之興彈琴鼓缶之樂, 而終亦使我景仰前哲之芳躅, 歌詠先王之遺風, 此非會心者歟.”(『고산유고』, 앞의 책, 447d.)

자나 군신에 대한 윤리를 상호 공존이 가능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윤선도는 이 양자를 사이에 두고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양자를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회심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의 작품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들은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이 작품이 결사이기 때문에 윤선도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군은과 그것을 갚을 수 없는 현실적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이해하는 것, 모든 것을 군은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앞의 흥취가 사실은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라기보다는 조선전기 강호시조 일반에서 나타나는 심성수양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 나아가 앞에서 극단적 언사를 사용하여 유세독립의 뜻을 지나치게 나타낸 것을 가리기 위해 군은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 등은 모두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존의 논의들은 모두 강호자연 속에서 사시가흥을 노래한 것은 수기적(修己的)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따라서 자연물을 접한 화자의 감흥은 최대한 절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관념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윤선도는 이런 16세기적 이분법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에 이미 보길도 부용동 원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덕 유배에서 돌아온 그는 새로운 원림을 찾아 나서 수정동과 문소동을 발견하고 그 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그의 원림 경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정동이나 문소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쇄동 원림을 다시 조성하여 경영하였다. 이런 유별난 그의 산수벽을 어찌 심성수양이나 학문도야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3. 〈오우가〉 : 금쇄동에서 발견한 자연의 미덕

〈오우가〉는 그 명칭으로 보아 이신의(李愼儀, 1551~1627)의 <사우가(四友歌)>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품임이 분명하다. 또한 윤선도가 『소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일찍이 <상우부(尙友賦)>를 지은 것도 <오우가〉의 창작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²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우가〉가 『산중신곡』의 일부이며, 따라서 금쇄동 경영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오우가〉에는 일반적인 교화의 내용이 아닌, 윤선도가 금쇄동에서 발견한 자연의 미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 버디 몇치나 흥니 슈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의 들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숫 밧고 또 더흥야 머엇흥리.

구름뱃치 조타 흥나 검기를 즈로 한다
 바람소리 몹다 흥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뿐인가 흥노라. <水>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흥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뿐인가 흥노라. <石>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넓 디거늘
 술아 너는 얻디 눈 서리를 모르느다

20) 이에 대해서는 “윤영옥, 『고산의 오우가』, 『고산연구』 제2호, 1988.,” “이용숙, <사우가>와 <오우가>의 비교연구, 『고산연구』 제2호, 1988.” 등 <오우가>를 논의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구천(九泉)의 불회 고든 줄을 글로 햏아 아노라. <松>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는다
 더러코 스시(四時)예 프르니 그를 도하 햏노라. <竹>

자근 거시 노피 떠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밤등의 광명(光明)이 너만햏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햏니 내 벌인가 햏노라. <月>

<오우가>는 매우 정교한 구조로 짜여 있다. 이 정교한 구조를 위해 윤선도가 1차적으로 참고한 것은 <오륜가>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오륜가>는 ‘서사+오륜’의 6수로 구성되어 있다. 윤선도는 이를 차용하여 ‘서사+오우’의 6수로 <오우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오우가>의 구조를 <오륜가>에서 참고한 것은, 이 작품이 비록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깃든 덕성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연물의 덕성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하는 교시성(敎示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우가>의 우수성은 <오륜가>의 기본 형식을 차용했으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윤선도가 금쇄동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사는 자신이 벼 삼고자 햏는 것이 뱃이나고 묻고 그것이 다섯이라고 밝히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벼를 제시하는 수법을 보면 수석과 송죽은 초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달은 중장에 별도로 떼어 제시하면서 “그것이 더욱 반갑다”고 햏다. 장을 나누어 배치한 것도 그렇고 더욱 반갑다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달은 나머지 네 벼과는 차원이 다른 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달이 천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초장에서 제시한 네 벗은 달과 달리 지상의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지상의 것도 수석과 송죽을 나누어 표현했다. 이는 수석은 지상의 무생물인 데 비해 송죽은 지상의 생물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서사에서부터 다섯 벗의 성격을 구분 짓고 거기에 따라 표현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하 다섯 수에서 각 자연물의 덕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형상화 방식도 서사에서 구분 지은 세 가지에 따라 제2수와 제3수, 제4수와 제5수, 그리고 제6수로 나누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²¹⁾

그런데 이런 정교한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섯 벗으로 선택한 것이 왜 수(水), 석(石), 송(松), 죽(竹), 월(月)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우가> 이전에 이미 이신위가 지은 <사우가>가 있었고 윤선도는 분명히 이 <사우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우가>와 <오우가>를 견주어보면 작가가 시적 대상으로 삼은 자연물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신위가 <사우가>에서 노래한 송(松), 국(菊), 매(梅), 죽(竹)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사군자이며, 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의미도 관념적인 지조나 절개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윤선도의 <오우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칭송한 자연물(송, 죽)보다 오히려 주목하지 않았던 자연물(수, 석, 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섯 자연물에서 읽어내는 덕성 또한 관념적으로 칭송된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오우가>에서 노래된 자연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윤선도가 금채동에서 만난 구체적인 자연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점이다.

21) <오우가>의 이런 정교한 구조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찍이 “조혜숙,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1997, 417~438쪽.”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오우가>는 윤선도가 금쇄동에서 만난 자연을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며, 각각의 자연물에서 취한 덕성은 전통적으로 얘기되던 통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금쇄동 자연을 즐기는 과정에서 윤선도 스스로가 직접 재발견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좀 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제2수의 물과 제3수의 바위에서 윤선도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천석고황(泉石膏肓)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듯 물과 바위는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적이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물과 바위처럼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칭송하기보다는 사군자처럼 특별한 것이 지닌 가치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윤선도 또한 이전에는 이런 점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금쇄동 생활을 계기로 윤선도는 당연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실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새삼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물과 바위를 오우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수와 제3수는 비교의 수법을 활용하여 물과 바위의 덕성을 칭송한다. 따라서 비교대상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차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명시적으로 표현된 결과에 대해서만 주목해 왔는데²²⁾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2) 제2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구름과 바람은 맑고 깨끗하기는 하나 변함(또는 그침)이 있다. 그런데 물은 맑고 깨끗하면서도 그침(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물의 덕성은 그침 없음의 부단(不斷) 또는 변함없음의 불변(不變)이다.

청명한 하늘에 깨끗한 구름이 떠있으면 한없이 바라보고 싶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싶어진다.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와 볼을 스치면 절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때 구름 빛이 금방 검은 빛으로 바뀔 것이라거나 상쾌한 바람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이 시에서 부정되고 있는 깨끗한 구름 빛과 맑은 바람소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물은 땅바닥 혹은 땅속을 흐르는 존재다. 때문에 별도로 의식하지 않으면 잘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의식적으로 관찰 하더라도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즉 물은 특별히 도드라진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2수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밑바탕에 깔 상태에서, 내면의 본질을 알고 보면 실은 일반적 생각과 달리 물이라는 존재가 훨씬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선도 스스로가 금쇄동의 자연을 접하면서 새삼 발견하게 된 반전의 깨달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아마도 퇴계가 <도산십이곡>에서 학문도야에 국한해 말한 것²³⁾보다 노자가 “上善若水”라고 말한 포괄적 의미²⁴⁾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제3수의 바위는 주목받지 못하는 면으로 치면 물보다 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꽃은 그 화려함으로 인해, 풀은 그 싱그러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변하는 것을 꽃과 풀의 아쉬움으로 말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것들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

23) “靑山은 옛데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 流水는 옛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느고 /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도산십이곡> 후육곡5.)

24)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所惡, 故幾於道.” (『노자』 8장.)

이한다. 또는 상실한 채 오랫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피우고 싱그러운 풀잎을 자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변함이 있기 때문에 꽃과 풀을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위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바위는 아무리 계절이 바뀌어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불품없이 시커멓게 놓여 있다.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것이 꽃과 풀과 바위를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윤선도는 금채동을 경영하면서 이런 일반적 인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위가 오히려 꽃이나 풀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월출암 아래에 회심당을 짓고 생활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만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윤선도의 금채동 생활은 회심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회심당 중심의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출암에 앉아 자연을 즐기는 것, 즉 월출암에 앉아 가까이로는 물을 바라보고 멀리는 바위산인 영암 월출산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윤선도는 남들이 보지 못한 바위의 본질-변치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된 것이다.

제4수의 술과 제5수의 대에서 윤선도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새로움의 발견’이다. 술과 대는 앞의 물이나 바위와 달리 이미 전통적으로 군자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칭송된 것들이다. 따라서 윤선도는 전통적으로 주목해온 이것들의 덕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깨달음을 보태고 있다는 점이다.

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초장과 중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추위가 닥쳐 눈서리가 몰아치는데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씩씩함

을 유지하는 술에 대한 형상은 이미 『논어』²⁵⁾에도 등장할 정도로 통념화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윤선도는 이것에 가려 보이지 않는, 땅 속 깊이 박혀 있는 뿌리의 곧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땅 속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이는 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의 곧음과 푸름은 수없이 강조되어 온 특성들이다. 대에게서 절개를 읽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대의 또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속이 빈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윤선도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의 속을 보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속을 주목하는 이런 태도는 마지막 벗으로 제시한 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달에게서 첫째로 주목한 것은 작음이다. 작지만 높이 뜨기에 만물을 다 비출 수 있는 것이 달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주목한 것은 어둠이다. 밤중에 떠오르기 때문에 더욱 고맙고 반가운 것이 달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말 아니함이다. 달은 온 세상을 다 비추어 만물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달은 자신이 보고 알게 된 것을 조금도 말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윤선도가 벗 삼고자 하는 자연물이 가진 공통된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보잘 것 없고, 작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이 가진 아름다움과 위대함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 윤선도가 금쇄동 경영에서 직접 깨달은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다섯 가지 자연물이 금쇄동에서 수시로 접할

25)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논어』 「자한」.)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과 바위와 달은 어떤 원림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금쇄동 경영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회심당과 월출암을 중심으로 가까이 흐르는 물과 멀리 바라보이는 바위산, 그리고 저녁에 떠오르는 달을 즐기는 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가 있다. 나머지 둘은 사군자급으로 거론되는 것들인데 <금쇄동기>를 보면 솔과 대는 금쇄동에 있었던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²⁶⁾ 그 외 매화, 난초, 국화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로 보아 금쇄동에서 직접 만난 자연물을 대상으로 노래한 것이 <오우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벗에게서 강조되고 있는 특성들이

26) “상휴에서 동쪽으로 칠팔 보쭈 아래로 내려가면 석대가 있는데 층층으로 앉을 수가 있고 구비마다 오묘한데다가 옆에 **송림(松林)**이 있어서 건(巾)을 벗고 이마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채풍(灑風)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아래에 석실(石室)이 있는데, 사방 어디를 통해서도 들어갈 길이 없고, 오직 대(臺)의 동북쪽 모서리에 보일 듯 말 듯 돌사다리가 놓여 있을 뿐이다. 이 사다리를 타고 2장(丈)쯤 내려가서 남쪽을 엿보면 틈새 하나가 벌어져 있는데, 옷깃을 여미고서 겨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몸을 구부리고 몇 보를 가면 틈새가 다하면서 방 하나가 보이는데, 1장(丈)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밝고 안정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한 그루 **소나무**가 있고 곁에는 두 떨기의 철쭉이 있다.”(<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08쪽.) “그리고 만세토록 더 자라지 않을 **고송(孤松)**이 그 뒤에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학상인(鶴上人)이 수레를 멈출 만한 곳이라서, 이백(李白)의 시어(詩語)를 취하여 연화(蓮華)라고 명명하였다.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흡월(吸月)에 서의 경치와 같은데, 동서의 점촌(店村)이 **죽림(竹林)**의 모옥(茅屋)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긴 시냇물이 빙 돌아 흐르고 좁은 길이 굽이굽이 이어져서 하나의 기이한 그림을 더 선사하고 있다. …(중략)…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연화(蓮華)에서의 경치와 같다. 그 중 몇 군데 앉을 만한 곳은 흡을 머리에 이고서 평화롭고 안온하며 부드러운 풀밭이 마치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데, 푸른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기선(基仙)이 대좌(對坐)할 곳으로 아주 적당하기에 난가대(爛柯臺)라고 명명하였다.”(위의 책, 420~421쪽) “그런데 대 옆에는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져서 세한(歲寒)에 홀로 지조를 지키고 있는데, 낙일(落日) 무렵에 올라가 굽어보면 마치 울리(栗里)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을 보는 것 같기에, 마침내 **고송(孤松)**이라고 명명하였다.”(위의 책, 422쪽.)

금채동의 지세에서 느낀 바를 서술한 다음 내용과 상통하는 점들이 많은 점도 이것이 금채동 경영의 산물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곳은 지세(地勢)가 팔창(括蒼)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으니, 이는 높으면서도 자기를 능히 낮추는 것이요, 시선(視線)이 백리 밖에까지 미치면서도 산수(山藪)의 병통이나 천택(川澤)의 오염 같은 것은 일절 보이는 것이 없으니, 이는 밝으면서도 잔달게 따지지 않는 것이요, 주위를 조밀하게 에워싸고 있는데도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조림(照臨)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보위(保衛)하면서도 엄폐(掩蔽)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 사는 마을까지 신기(神氣)가 감도는데도 나직한 구렁이 안에서 가로막고 옆으로 벌은 산이 밖에서 차단하니, 이는 트였으면서도 엉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빼어나게 수려한 산봉우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얼굴을 펴고서 영접하지 않음이 없고, 개밋둑과 같은 잔단 것들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감히 문장(門牆)을 엿보지 못하게 하니, 이는 지란(芝蘭)을 대하듯 현인(賢人)을 가까이하는 것이요, 미워하지 않고서 엄격하게 소인(小人)을 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면은 토지(土地)가 따스하고 윤기가 있으며 외면은 각진 모서리가 예리하고 가파르니, 이는 충신(忠信)을 위주로 하면서 의(義)로써 밝을 바르게 함이요, 유색(柔色)과 완용(婉容)으로 조종(祖宗)의 삼중(三重)의 산을 마주하니, 이는 시선을 두는 예절이며 안색을 살펴 만드는 공경이요, 여러 아름다움을 다함께 갖추었어도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으니, 이는 그 도는 드러내고 그 몸은 숨김이요, 능히 큰 산으로 하여금 옹위(擁衛)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처한 곳은 지극히 작으니, 이는 교화함은 광대하면서도 조수(操守)함은 간이(簡易)한 것이다.

새기고 그리며 분을 발라 장식하고 포치(布置, 안배)하여 알록달록 꾸미는 것 등은 모두 여러 산들의 몫으로 부치고, 자기는 잘하는 것을 한 가지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마치 이(利)·정(貞)·형(亨)에 대한 원(元)이나 금(金)

·목(木)·수(水)·화(火)에 대한 토(土)처럼 하니, 이는 성인(聖人)을 한 가지 선(善)으로만 지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이 일단 이 땅을 차지한 이상에는 땅의 아름다움이 바로 집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므로, 내가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기에 회심(會心)이라고 명명하였다.²⁷⁾

금쇄동의 지세가 갖는 특징을 고려하여 집의 이름을 회심이라 명명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금쇄동 지세의 특징을 보면 “높으면서도 자기를 능히 낮추는 것, 밝으면서도 잔달게 따지지 않는 것, 그 도는 드러내고 그 몸은 숨김, 자기는 잘하는 것을 한 가지도 자랑하지 않는 것” 등 <오우가>의 자연물들이 지닌 특징들과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우가>의 자연물을 통해 윤선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금쇄동을 발견하고 이를 경영하던 당시의 생각이나 사상을 반영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금쇄동 경영 당시 윤선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오우가>나 <금쇄동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작은 것’, ‘낮은 것’, ‘말하지 않음’의 위대함이 도가(道家)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27)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25~427쪽. “況乎此地勢可括蒼而自處奧然，是高而能謙也。視及百里之外，而山藪之疾，川澤之汚，一無所見，是明而不察也。周匝固密，而日月星辰無不照臨，是衛而不蔽也。境落褰舉，而低阜內障，橫嶂外闌，是開而不疏也。秀發之峯則雖遠而無不開顏引接，丘垤之微則雖近而莫敢窺闥門牆，是親賢如就芝蘭，而待小人惡而嚴也。裏則土地溫潤，而表則稜角峭峻，是忠信以爲主而義以方外也。柔色婉容，以對祖宗三重之山，是游目之禮，承顏之敬也。衆美俱備，而在於世人所不見之處，是其道則彰而其身則隱也。能使大山環拱，而所處之地至小，是其化則大而其守則約也。刻畫粉飾，布置粧點，皆付於衆山，而已無一能之銜，如元之於利貞亨，土之於金木水火，是猶聖人之難可以一善目之也。然而斯堂也既占斯地，則地之美卽堂之美也。余無能名焉，名以會心。”(『고산유고』, 앞의 책, 447d~448b.)

다. 노자는 “있음으로써 이로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없음을 가지고 쓰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²⁸⁾라고 하여 ‘보이지 않는 것’, ‘비어 있는 것’의 가치를 역설한 바 있다. 또한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천지조차 감히 신하로 삼을 수 없다.”²⁹⁾고 하여 무욕(無欲)의 덕성을 지닌 작은 통나무³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이를 도(道)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이렇듯 무욕의 덕성을 지니고 있기에 높은 곳을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을 지향한다. 앞서 이미 인용한 바 있듯이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즉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³¹⁾ 도가는 이처럼 없음에서 있음이 나오고, 작은 것을 지향하는 데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낮은 곳으로 임하고 스스로를 낮추려는 것에서 오히려 훨씬 높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한 사상이다. 한편 도는 이런 역설을 가능하게 하지만 굳이 자신의 공을 말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생겨나게 했지만 근원이 된다고 여기지 않으며, 은혜를 베풀지만 자부하지 않고, 공을 이루었으나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머무르려 하지 않으므로 떠나감도 없다.”³²⁾ 이런 점에서 <오우가>의 마지막 수에서 노래한 달은 도가의 도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이를 벗 삼고자 하는 화자는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오우가>와 <금쇄동기>에 나타난 도가적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윤선도가 금쇄동을 발견하고 쓴 시나 금쇄동의 여러 장소들에 대한 명명법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28) “故有之以爲利，無之以爲用.” (『노자』 11장.)

29) “樸雖小，天地不敢臣.” (『노자』 32장.)

30) “常無欲，可名於小.” (『노자』 34장) “無名之樸，夫亦將無欲.” (『노자』 37장)

31) 주 23) 참조.

32) “萬物作而不爲始，爲而不恃，成而不居. 夫唯不居，是以不去.” (『노자』 2장.)

鬼刻天慳秘一區	귀신이 깎고 하늘이 아낀 하나의 비경
誰知眞籙小蓬壺	진록의 작은 봉호임을 그 누가 알라?
瓊瑤萬仞神仙窟	경요의 일만 길 신선의 굴이라면
山海千重水墨圖	산해의 일천 겹 수묵의 그림일세.
兔躍鴉騰窺斷嶂	토끼 뛰고 까마귀 날며 단장을 기웃거리고
風顛雨暗在平蕪	평퍼진 벌엔 사나운 바람 그리고 어둑한 비
登臨記得前宵夢	올라서서 곱어보니 기억나는 간밤의 꿈이여
玉帝何功錫與吾 ³³⁾	무슨 공이 있다고 옥제가 나에게 주셨을까?

금쇄동을 가리켜 “귀신이 깎고 하늘이 아낀 하나의 비경”이라고 하여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곳이 뜻밖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음에 놀랐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경을 향해 “진록의 봉호”라 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진록은 도교의 장경(藏經)을 가리키며 봉호는 삼신산의 하나인 봉래(蓬萊)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금쇄동이 도장(道藏)에 나오는 삼신산의 축소판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이 금쇄동을 얻게 된 것이 꿈에 옥황상제가 금쇄석레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만흥> 제5수에 나오는 ‘하늘’도 옥황상제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윤선도는 옥황상제가 자신을 위해 선물한 삼신산으로 금쇄동을 인식하였기에 “계곡 아래 점로(店路)에서부터 금쇄동으로 오르는 길은 인간세계에서 신선의 세계로 가는 경로로 상징화되어 있다.”³⁴⁾

나는 병폭(屏瀑)의 아래에 있는 평탄한 그 바위 위에다 조그마한 정자를

33) <初得金鎖洞作>, 『고산유고』, 앞의 책, 276b. 번역은 “이상현 역, 『고산유고』 1, 한국고전번역원, 2011, 337쪽.”을 참고한 것임.

34) 성종상,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나무도시, 2010, 48쪽.

지으려 한다. 그리하여 차가운 비와 느닷없는 눈발에 흥이 깨지는 불상사를 면하고 꽃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에 뜻 가는 대로 소요(逍遙)한다면, 거연(居然)히 나의 수석(水石)의 즐거움을 자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이와 함께 유람하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기사(奇事)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오는 자가 이곳에 이르면 어느새 이 구역이 묘연(杳然)하여 신관(神觀)이 상쾌한 것을 깨닫고는 문득 세상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겠기에 그 정자를 휘수(揮手)라고 명명하려 한다.³⁵⁾

휘수정의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곳에 이르면 문득 세상을 버리고 싶은 생각에 손을 흔들어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므로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 휘수정을 경계로 하여 이전은 인간세계이고 이후는 신선세계로 구분된다는 뜻이다. 이 휘수정 외에도 여러 명소에 대한 명명에서 도가적(또는 신선적) 성격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가대(爛柯臺)는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 두기에 적당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며, 집선대(集仙臺)는 신선들이 도를 강론하던 장소라는 점에서 붙인 이름이고, 흡월(吸月)은 취선(醉仙)이 약을 요구하자 옥토끼가 하마(蝦蟆, 달 속의 두꺼비)를 조제하려고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 같아서 붙인 이름이라 하였으며, 연화(蓮華)는 학상인(鶴上人)이 수레를 멈출 만한 곳이라서 이백의 시어를 취해 그렇게 명명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금쇄동 발견과 경영 당시 윤선도가 도가적 사유에 빠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선도의 금쇄동 생활을 도가적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도가

35) <금쇄동기>, 이상현 역, 『고산유고』 3, 한국고전번역원, 2015, 422~423쪽.

관련 내용들은 금쇄동 생활의 일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금쇄동의 명소에 대한 명명 중에는 전통적인 유가와 관련된 것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안자(顔子)가 성인(聖人)의 도를 찬탄한 것과 같은 점이 있어 침홀(瞻忽)이라고 명명한 것, 성품대로 하거나 회복해서 하거나 그 귀결점은 하나인 이치와 부합하는 점이 있어 지일(至一)이라고 명명한 것, 『시경』 <소완(小宛)>의 유희이인(有懷二人)의 뜻을 따라 유희(有懷)라고 명명한 것, 『논어』 『학이(學而)』에서 취하여 추원(追遠)이라 명명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윤선도가 금쇄동 명소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유가적인 것과 도가적인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윤선도는 유가와 도가의 조화를 추구한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윤선도는 유가와 도가의 조화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유가와 도가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쇄동 경영을 통해 유가와 도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금쇄동기>와 <오우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쇄동 명소의 명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빈(寅賓)이다.

산점(山店)이 발밑의 반공중(半空中) 아래에 있어서 촌락의 모습이나 닭과 개 소리가 연무 속에 아련하니, 하계(下界)의 형역(形役)을 상상해보면 이 몸이 초연함을 더욱 느끼게 된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유희(有懷)의 서쪽 경관을 반쯤 얻고 유희의 동남쪽 경관을 온전히 얻었는데, 태양이 떠오를 적에 맨 먼저 붉게 물드는 곳으로는 여기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인빈(寅賓)이라 명명하였다.³⁶⁾

36) 이상현 역(2015), 위의 책, 417쪽.

인빈은 산꼭대기 외곽 산성에서 가장 동쪽에 돌출된 거대한 바위 절벽인데, 윤선도는 이곳에서 하계의 형역을 상상해보면 더욱 초연함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는 이곳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금쇄동이 신선의 세계임을 실감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해는 임금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임금을 대하듯 공손하게 맞이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인빈은 중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선도에게 있어 이 둘은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우가>의 마지막에서 달은 작지만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달은 도가의 도에 가장 부합하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이를 벗 삼고자 하는 화자는 도가에서 말하는 성인이라 할 수 있다.”고 앞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달의 이런 속성은 꼭 도가의 도에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논어』 <양화>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도) 사시가 운행하고 만물이 생장하니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내용이 나온다. 공자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공이 선생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도를 전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공자가 들려준 말이다.³⁷⁾ 이로써 보면 하늘(자연)이 만물을 생장시키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것과 성인이 오묘한 도를 실천하면서도 이를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은 유가와 도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낮은 단계에서는 유가와 도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 차이는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게 유가의 성인이 따로 있고 도가의 성인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없다. 윤선도가 금쇄동 경영에서 깨달은 것은 이런 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37)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予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논어』 <양화>.)

4. 결론

이상에서 윤선도의 『산중신곡』이 금채동 경영의 산물임을 입증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만홍>과 <오우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사실 『산중신곡』이 금채동 경영의 산물이라는 것은 문집과 <연보>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상식화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산중신곡』이 수정동의 산물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중신곡』이 금채동 경영의 산물이라는 주장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산중신곡』이 금채동 경영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만홍>과 <오우가>를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홍>은 그 어떤 강호자연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흥취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윤선도가 금채동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심당과 월출암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맛본 흥취를 노래한 것이다. 제1수가 월출암 아래에 회심당을 짓는 과정에서 일었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 제2수와 제3수가 회심당 주변에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구체적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4수와 제5수에서는 금채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제6수에서는 이런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군은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세독립(遺世獨立)과 연군의식(戀君意識)이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 윤선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오우가> 역시 윤선도가 금채동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자연의 미덕을 노래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선도가 <오우가>에서 선택한 다섯 벗은 그가 금채동에서 수시로 만난 것들이고, 다섯

벗의 덕성은 윤선도가 금채동 생활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다. 물과 바위는 천석고황(泉石膏肓)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대표적 자연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다. 윤선도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느꼈기에 오우의 대상으로 삼았다. 술과 대는 사시(四時)에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익히 주목되어 온 것들인데 윤선도가 이들을 오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윤선도가 이들을 선택한 것은 땅 속 깊이 박혀 있는 소나무 뿌리의 곧음이나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의 속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덕성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달 역시 금채동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작은 것의 위대함을 직접 깨닫게 되었기에 오우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오우의 선택과 의미부여 과정을 통해서도 유가와 도가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사고하는 데서 벗어나 양자의 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孤山先生年譜>, 『고산연구』 제3호, 고산연구회, 1989, 부록.
『고산유고』, 『한국문집총간』 91, 민족문화추진회, 1992.
『노자』
『논어』
이상현 역, 『고산유고』 1~4, 한국고전번역원, 2011~2015.
이형대·이상원·이성호·박종우 옮김, 『국역 고산유고』, 소명출판, 2004.
인조19년(1641년) 4월 28일 계유 1번째 기사, 『인조실록』 42권, 『조선왕조실록』 DB, 국사편찬위원회.

문영오, 「<산중신곡>과 <금쇄동기>의 교용성」, 『국어국문학』 제125호, 국어국문학회, 1999, 69~89쪽.
박준규, 「고산의 수정동 원림과 산중신곡」, 『고산연구』 제2호, 고산연구회, 1988, 49~81쪽.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창간호, 고산연구회, 1987, 205~248쪽.
성종상, 『고산 윤선도 원림을 읽다』, 나무도시, 2010, 1~127쪽.
윤영옥, 「고산의 오우가」, 『고산연구』 제2호, 고산연구회, 1988, 193~221쪽.
이용숙, 「사우가>와 <오우가>의 비교연구」, 『고산연구』 제2호, 고산연구회, 1988, 223~249쪽.
조하연, 「<산중신곡>의 구조에 나타난 윤선도의 자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3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179~211쪽.
조해숙, 「<五友歌>의 시적 구조와 의미 분석」,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417~438쪽.
최진원, 「산중신곡과 금쇄동기의 관계-자연관을 중심으로-」, 『고산연구』 제3호, 고산연구회, 1989, 143~154쪽.

ABSTRACT

A study on Yun Seon-do's Management
of Geumsoaedong and *Sanjungsingok*

Lee, Sang-won

This study set out to demonstrate that Yun Seon-do created *Sanjungsingok* based on his direct connections to the management of Geumsoaedong and make an attempt at interpreting his *Manheung* and *Owooga* based on the findings.

Yun created *Manheung* out of joy he felt in the process of enjoying the nature surrounding Hoishimdang that took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the Geumsoaedong garden. It consists of total six poems. Poem 1 is the prologue and tells that his duty was to build Hoishimdang and manage Geumsoaedong. Poems 2~5 make up the main body, which is then divided into two parts: Poems 2 and 3 offer detailed depictions of the speaker enjoying nature around Hoishimdang, and Poems 4 and 5 show his satisfaction with his life in Geumsoaedong around Hoishimdang. Poem 6 is the conclusion in which the speaker attributes all of it to the royal benevolence. It is the expression of what he felt in his contact with nature in Geumsoaedong rather than a conventional finish.

In his *Owooga*, Yun introduces five natural objects and praises their virtu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he newly found those five natural objects and their virtue in Geumsoaedong. As the expression Cheonseokgohwang tells, water and rocks have been regarded as representative natural objects. It is a paradox that people do not realize their preciousness because they are representative natural objects. Yun realized their preciousness anew and made them his objects of *Owoo*. Both the pine tree and bamboo tree have long attracted attention as they remain green throughout the four seasons of the year. It is not the only reason, however, that he made them his objects of *Owoo*. He chose the

two because he discovered their internal virtue not seen on the outside anew: the pine tree has straight roots deep in the ground, and the bamboo tree has a unique attribute of hollowness inside. Finally, he chose the moon because he realized the greatness of small things himself while seeing it frequently in Geumsoaedong.

Key Words Geumsoaedong, *Manheung*, *Owooga*, *Sanjungsingok*, Yun Seon-do

논문투고일 : 2016.12.30
심사완료일 : 2017. 2. 5
게재확정일 : 2017. 2.18